

중소기업 '돈이 되는 R&D' 완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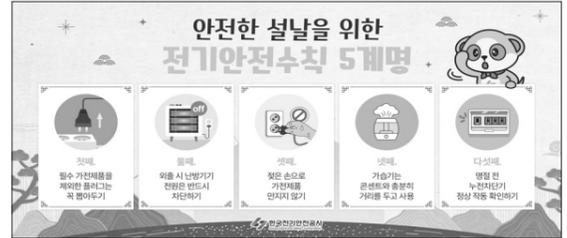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사업화 패키지' 신설... R&D 성과 사업화 본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우수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실제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 시행계획을 2월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R&D 이후 사업화 단계에 특화된 후속 지원 체계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정부 R&D 투자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성과가 단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기술개발 이후 단계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통

해 R&D 성과가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기술사업화 패키지'는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해 신청하면, 사업화 전담기관이 기업 및 시장 상황을 진단한 뒤 '주치의' 방식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처방·지원하는 구조다. 수출, 마케팅, 브랜딩, 해외인증 등 기업별 특성에 맞는 사업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에는 두 개의 지원 트랙이 포함됐다. 첫째, '정부 R&D 우수과제' 지원 트

랙은 중기부·산업부·과기정통부 등 18개 부처로부터 R&D 우수과제 수행 기업을 추천받아, 사업화 역량을 갖춘 10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5천만원의 사업화 보조금을 지원한다. 둘째,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지원 트랙은 스마트테크브릿지(중기부·기술보증기금 운영)와 IP-Market(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운영)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4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그 트랙을 통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민간 전문기관의 사업화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지원 항목은 '메뉴판' 방식으로 구성돼 선

정 기업과 사업화 전담기관에 제공되며, 이를 통해 판로 개척과 매출 창출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R&D 성과가 보고서나 시제품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잘 만들고, 잘 파는' 구조를 정착시켜 '돈이 되는 R&D'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12일부터 중기부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설 명절 전기안전수칙 5계명'

안전한 설 위한 전기안전수칙

한국전기안전공사, 예방수칙 5계명 공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전기안전수칙 5계명'을 공개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 128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와 약 25억8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사는 설 연휴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전기안전 체크포인트로 △장기간 외출 시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사용 후 난방기기 전원 차단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 사용 금지 △가스기 사용 시 콘센트와 충분한 거리 유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등을 제시했다. /오상근 기자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도모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신보와 14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추진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길환)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약 1,4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회생보듬자금' 협약대출을 시작으로,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특별대출과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과의 '희망더드림' 협약대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저금리의 저자세 협

약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이번 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리 신규 대출을 통한 금리 부담 경감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길환 본부장은 "농협은행의 핵심 가치는 고객과의 동반성장"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약 1,4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모습)

농촌진흥청,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 공동연수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원주)에서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을 주제로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이 추진 중인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 기술 개발' 과제와 연계해 2025년 기술개발 및 현장 실증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현장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농촌진흥청 8개 관련 부서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해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배추 장기 저장

(MA·CA) 실증 △고랭지 배추 병해충 방제 △준고랭지 조기 출하형 재배 형태(신작형)의 안정 생산 △농작업 기계화 등 주요 분야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한 실행 전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기관별 협의 의제도 논의됐으며, 농촌진흥청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기술 고도화와 현장 실증·보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혁신 에코르 2단지 공가세대 29세대 일반 분양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전주·익산 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이후 발생한 잔여 공가세대 29세대를 일반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10년 임대 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 퇴거로 발생한 세대로, 오는 2월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3월 3일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50㎡ 24세대(분양가 1억1,615만원) △전용면적 59㎡ 5세대(분양가 1억3,610만원)로 구성됐다. 기존 입주 단지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시세 대비 낮은

가격이 장점으로 꼽힌다. 분양은 기존 입주자 퇴거 이후 현 상태 그대로 인계받는 조건이다. 청약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하다. 1순위 자격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당첨될 경우 3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주거복지처(063-280-7415)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국립종자원, '대한민국 우수품종 경진대회' 참가 모집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국내 육종가의 신품종 개발 의욕을 높이고 종자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우수품종 경진대회' 참가 품종을 오는 3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2005년부터 국내 육성 품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미래 육종 인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후계육종가 분야'를 신설했다. 후계육종가 분야는 만 45세 이하이면서 육종 경력 5년 이상인 육종가를 대상으로 한다. 출품 대상은 최근 15년간 국내에서 육성된 작물 품종 중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거나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이다. 다만, 수출품종의 경우 품

종보호 등록이나 국가품종목록 등재가 없더라도 수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출품이 가능하다. 경진대회는 3월 말 분야별 서류심사를 진행하며, 4월부터 10월까지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가 평가와 소비자 평가를 거쳐 10월 종합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 품종 8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 품종에는 총 1억6천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통령상 1점(5,000만 원), 국무총리상 2점(각 3,0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5점(일반 분야 4점·후계육종가 분야 1점, 각 1,000만 원)이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로 육성한 품종의 경우 상금의 절반이 지급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정읍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대출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정읍시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읍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1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은행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억5천만 원을 특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정읍시 희

망더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11일부터 상담 접수를 시작한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은 정읍시 소재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3천3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